

무향 그래프의 절선 / 절점 개념과 비교할 시, 조금 더 정의가 복잡하며 그 성질들도 자명하게 보이지 않는다. 하지만, 트리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의 경로 존재 여부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. 앞서 예로 든 Flow Graph 문제를 예시로 하면, "A 코드가 실행될 때 B 코드는 이미 실행되었을까?" 와 같은 질의는, Dominator Tree 상에서 어떠한 정점이 다른 정점의 조상인지를 판별하는 것과 동치이며, 트리의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해서 초기 전처리 후  $O(1)$ 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. 그 외에도 방향 그래프로 모델링 되는 다양한 문제들은, Dominator Tree를 통해서 더 쉬운 문제로 간소화시킬 수 있다.